

18~19세기 西學中源論의 전개와 그 함의 -西學에 대한 조선학자들의 대응논리-

함영대*

< 目 次 >

- | | |
|----------------------|-----------------------------------|
| I. 문제제기 | III. 조선 학인들의 서학중원론과
문명수용의 비판논리 |
| II. 서학중원론의 등장과 조선 전래 | IV. 남는 문제 |

<국문 초록>

17세기 명말청초 이래 중국을 왕래한 조선의 사신들에 의해 전래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에 대한 조선 학자들의 대응논리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논리로 여전히 현재적 의미가 있다.

당시 조선학계에서는 서구의 문명이라도 뛰어난 과학기술은 배워야 한다는 논리만큼이나 선진적인 기술은 배우되 사회질서, 도덕실천과 관련된 이단 사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道器의 분리수용론이 강렬하게 제기되었다. 서구 문명에 대한 대응의 층차가 매우 다양했던 것이다. 이러한 대응논리 가운데 흥미로운 논점 가운데 하나가 西學中源論이다.

서학중원론은 발전된 서양의 과학은 중국의 고대문명에서 기원했다는 명말청초 중국 학자들의 주장으로 자문화 중심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에 대한 수용논리로 개발된 것이다. 서학중원론의 역사적 진실성은 매우 희박할 뿐 아니라 그 논리적 허술함은 간과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 alongdiri@hanmail.net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접변의 과정에서 거의 150년 이상 서학중원의 논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지식과 인식의 완고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과학과 문명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문대상으로서의 인식논리, 학문의 목표와 방법론의 문제, 문화정체성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이문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 변화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은 새로운 문명과 상대에 대한 열린 시각과 정당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주체의 확립도 고립이 아니라 변화상을 온전히 접수하면서 이루어질 때 더욱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18~19세기, 西學中源論, 명청교체기, 조선학자, 道器분리수용론

I. 문제제기

異文明의 수용¹⁾에서 전폭적이거나 절대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최고 수준의 문명을 수립하여 구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더욱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문명을 접수해야 하는 처지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17세기 명말청초 이래 중국을 왕래한 조선의 사신들에 의해 전래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에 대한 조선 학자들의 대응논리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논리로 여전히 현재적 의미가 있다.

당시 조선학계에서는 서구의 문명이라도 뛰어난 과학기술은 배워야 한다는 논리만큼이나 선진적인 기술은 배우되 사회질서, 도덕실천과 관련된 이단 사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道器의 분리수용론이 강렬하게 제기되었다. 서구 문명에 대한 대응의 층차가 매우 다양했던 것이다. 이러한 대응논리 가운데 흥미로운 논점 가운데 하나가 西學中源論이다.

서학중원론은 발전된 서양의 과학은 중국의 고대문명에서 기원했다는

1) 문명론의 논점은 영향이 아니라 수용의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문화(문명) 다원론의 관점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근대를 거치며 제기된 문화에 대한 차별적 시각은 이후 이른바 선진 문명의 후진 문명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왜곡된 논리로 활용되었다.

명말청초 중국학자들의 주장이다.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시각으로 문화우월론의 관점이 짙게 배어 있다. 그런데 문명대응의 이 논점은 흥미롭게도 우월적 시각의 과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에 대한 수용논리로 개발된 것이다. 수용하기 쉽지 않은 발전된 이문명이 사실은 우리 고대 문명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은 생소한 문명의 수용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려 당대 사회에 소용되는 요긴한 요소를 접수하자는 전략적 관점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서양 선교사에 의해 서구의 과학이 중국에 이입되는 17세기에, 주로 천문 역상 분야의 지식 수용에 요청된 것이었는데 명청을 통해 서양의 문물을 접수하던 조선의 경우에서도 무관할 수 없는 서양 문명에 대한 중요한 수용논리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서학중원론'의 사적 맥락을 간결하게 짚어보고, 주요한 주장을 논점별로 분리하여 새로운 문명에 대응하는 인식논리로 그 정당성을 점검해 보려 한다. 당대 현실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접수하려면 그 문명에 대한 정당한 수용논리가 있어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질성의 수용에는 단순히 필요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문화정체성의 의미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러한 논리의 이면을 형성하고 있는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그 문명대응의 관점으로 오늘날 시사하는 바를 짚어보려 한다.

II. 서학중원론의 등장과 조선 전래

1. 서학중원론의 등장

1980년대 중국사학자 자크 제르네Jacques Gernet는 근대초 유럽과 중국의 교류에 대한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을 비판하면서 17세기 예수회를 매개로 이루어진 서구와 중국의 대면을 근대와 전통, 합리와 비합리의 대립이 아니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상의 문화적 충돌로 그렸다. 중국

이 기독교와 서구 천문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들의 지적 완고함이 아니라 세계관의 본질적인 차이에 의한 상호이해의 불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²⁾ 서로 다른 문화의 수용은 이질적인 토대와 문화적 지적 전통의 차이로 인해 온전하게 접수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접촉과 수용의 단계에서 적지 않은 변이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인데 그 변이에 대한 추적은 당대 문화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긴하다.

당대 자국에서 전래되던 천문지식과는 그 수준을 달리하는 서양 선교사에게서 유입된 천문지식을 접한 17세기의 중국학자들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딛고 있는 과학적 토대에 대한 자존심, 또는 두 과학 수준의 격차에 대한 당혹감을 서학중원론으로 돌파하여 심리적 평형을 유지하려 했다.

그 시작은 서양과학의 수용을 둘러싼 상반된 두 가지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徐光啟(1562~1633)와 李之藻(1565~1630) 등은 마테오리치와 교류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반면 楊光先(1597~1669)은 서양과학이 중국에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서양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극단적인 반서양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한 양대 조류 가운데 지식인들은 중국의 전통과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나 그 반대로 서양과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 사이에서 중국과 서양과학을 조화롭게 이해하고자 한 견해들도 제시되었는데 그 조화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양과학의 중국원류설, 곧 西學中源論이다.

全祖望(1705~1755)의 기록에 의하면 黃宗羲(1610~1695)는 중국에서 명맥이 끊긴 중국 고대의 句股術을 서양인들이 전수받아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는데³⁾

2) Jacques Gernet, tr. by Janet Lloyd(1985), *China and the Christian Impact: a Conflict of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임종태, 『17~18세기 중국과 조선의 서구 지리학 이해』, 창비, 2012, p.20. 재인용

3) 全祖望 『鮑廷璽集』卷11, 『梨洲先生神道碑文』, 그러나 황종희에 앞서 이지조 단계에서 이미 서학중원론의 원형은 제시되고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구만옥, 『조선 후기 과학사상사연구 I』, 해안, 2004 참조. 그 근거는 李之藻 『渾蓋通憲圖說簡平儀說』, 『渾蓋通憲圖說自序』 “응결되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운행하기 때문이다. 운행하여 멈추지 않는 것은 등글기 때문이다. 등근 가운데 모여서 하나의 좁쌀과 같은 땅이 되었다. 땅의 형체 역시 등글며, 그 덕은方正하다. 증자가 말하길 “만약 天圓地方이라면 네 모퉁이를 서로 덮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坤卦의 文言傳에 말하길 “지극히 고요하되 德이方正하다”라고 하였다.”라는 언급이 있다.

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불리는 수학적 원리가 그 보다 일찍 편찬된 것으로 이해되는 『周髀算經』에 설명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그 뒤에 梅文鼎(1633~1721)은 『曆學疑問』, 『曆學疑問補』에서 地圓說 등을 비롯한 서양천문 역학의 많은 부분이 중국 고대에 이미 밝혀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다. 천문을 담당하던 疇人들이 주나라 말기에 사방에 흩어져 중국에서는 옛 법을 상실하였는데 그것이 서방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⁴⁾ 그는 이러한 사실을 사마천의 『사기 曆書』에 실린 구절에서 발견했다. 사마천은 주나라의 혼란기에 천문역산을 담당했던 疇人 자제들이 '책과 의기'를 잃어지고 세계의 여러 곳으로 분산했다고 기술했다. 그는 이를 단서로 고대의 정치적 혼란기에 세계 각지로 흩어진 '주인자제'들에 의해 고대 성인들의 문헌과 의기가 異域으로 전파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이보다 앞선 『상서 堯典』에 따르면 요임금은 羲氏와 和氏를 사방에 파견하여 천문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그 가운데 서쪽으로 파견된 和仲은 바다나 흑한의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서역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는 "요컨대 蓋天周髀의 학문이 서역지방으로 흘러들어가 전해진 것이 온전할 수도 결함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그것을 담당할 자가 정밀할 수도, 조야할 수도 있으나, 그 뿌리는 하나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⁵⁾

『疇人傳』을 썼던 阮元(1764~1849)의 주장처럼 戴震은 서양의 역법은 그것의 장점을 겸용하여 구법의 미비점을 보충한 것일 뿐 고법을 폐하고 새로운 기술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⁶⁾

이러한 戴震의 학설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전해로 확립되었다. 그에게는 康熙제와 乾隆제의 전례논쟁으로 기독교와 서양 문명 전반에 대한 조정과 사대부층의 감정이 악화된 사정과는 무관하지 않았다. 기독교와 유교의 유사성을 강조한 마테오리치와 이지조의

4) 梅文鼎, 『曆學疑問補』卷1, 「論中土歷法得傳入西國之由」

5) 앞의 책, 「論蓋天之學流傳西土不止歐羅巴」

6) 阮元, 『疇人傳』, 『梅文鼎』, 中華書局, 1985

선교전략은 로마 교황청에 의해 공식 부인되어 이들의 補儒論적 관점을 대표하던 상제라는 명칭의 사용이 금지되고 조상에 대한 제사도 우상 숭배로 단죄되었다. 고대 유교 성인들이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보편적인 믿음이 부정되자 이에 상응하는 중국측의 조치가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매문정의 서학중원론과 같은 중화주의적 문명서사였다.⁷⁾ 그것은 『周髀算經』이 동서양의 모든 천문학, 및 수학지식의 원류였고, 모든 수학지식이 『九章算術』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⁸⁾.

戴震(1724~1777), 錢大昕(1728~1804), 阮元(1764~1849) 등 18세기의 청대 학자들은 매문정의 뒤를 따라 중국의 고대 천문학과 수학 우주론 문헌을 문헌학적 교감과 정밀한 계산으로 탐색하여 고대 중국의 지식을 복원하려 했는데 이는 매문정이 주장한 서양지식의 중국기원설에 대한 확장된 사례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였다.⁹⁾ 완원이 초기 서양의 문물을 전파한 아담살에 대한 전기를 아래와 같이 기술한 것에는 서학중원론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던 것이다.

서양학설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모두 서양 사람들의 학문이란 중국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고대의 史志를 널리 살펴보고 천문 산수가들의 말을 모아보니, 新法이란 것이 또한 고금의 장점을 모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들이 홀로 창안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땅이 둥근 모양이라는 것은 『大戴禮記』10편 「증자천원」중에 이미 언급되었고, 태양 궤도의 높낮이에 대한 주장은 『尙書 考靈曜』의 사유설과 합치한다. 淸蒙氣差에는 姜岑의 '地有氣說'의 학설이 있으며, 木 行星들이 각각 다른 천구에 있다는 설에는 郗萌의 '不附天體'의 설이 있다.¹⁰⁾

7) 임종태, 『17, 18세기 중국과 조선의 서구 지리학 이해』, 창비, 2012.

8) 김영식, 『동양과 과학의 차이 -서양과학, 동양과학, 그리고 한국과학』, 사이언스북스, 2013, p.4.

9) 임종태(2012), 같은 책, p.183.

10) 阮元 『疇人傳』卷45, 「湯若望」p.443.

중국학자들은 서학중원론을 주로 서양과학지식의 수용을 옹호하는 논리로 사용했다. 비록 오랑캐 서양인들의 것이지만 원래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¹¹⁾

2. 조선의 서학중원론

조선에 서학중원론이 도입된 것은 18세기 후반으로 파악된다.¹²⁾ 특히 서양 기술의 수용 논리로 처음 서학중원론을 제기한 인물은 정조의 사부이기도 한 서명응이었다. 서명응은 서양과학의 원류가 고대 중국에 있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¹³⁾ 그것은 마치 매문정 논의의 재론과도 같았다.

반고가 말하기를 춘추 말에 疇人 자제들이 외이로 분산하였다고 했다. 이것이 주인들이 周牌를 가지고 西域으로 가서 그 법술을 전한 것임은 의심할 것이 없다. 무릇 예를 잃으면 재야에서 구해야 하고 옛 것을 따르면 밝은 지혜가 있다고 했으니 성인의 유훈을 위해 그것을 취하는 것이다. 어찌 그것이 외국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유로 꺼리겠는가?¹⁴⁾

서명응은 이러한 인식하에 명말에 중국에 들어온 서양 천문학이 정확하지만 “그 법은 모두 周牌를 기초로 해서 晝夜, 節氣의 차이, 지구, 里差 이론 등이 모두 『서경』의 「堯典」이나 『大戴禮記』 등 중국 고대 문헌들의 내용과 꼼꼼히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문과 상수는 중국 고대의 성인이자 주역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고 기술되는 伏羲氏에게서 비롯되었으며, 요순과 夏 商을 거쳐 周公이 旬股의 법술을 논하여 『주비산경』을 지었

11) 김영식, 『중국과 조선, 그리고 중화-조선후기 중국인식의 전개와 중화사상의 굴절』, 아카넷, 2018, p.387.

12) 노대환, 『동도서기론 형성과정 연구』, 일지사, 2005

13) 박권수, 「서명응의 역학적 천문관」, 서울대 석사논문, 1996; 이를 이후 조선학자들의 대응까지 확대하여 부연한 것은 노대환, 『동도서기론 형성과정 연구』, 일지사, 2005, pp.60-78. 참조.

14) 徐命膺, 『保晚齋叢書』卷19, 「牌禮準序」

으며, 그에 근거해 천문을 관측하고 관제를 정해 『주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의 주장은 매문정의 주장을 그대로 인습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서양 지식의 근원을 중국 고대에서 찾은 매문정 류의 인식에 동의하여 서양의 지식과 중국의 전통적 천문학 및 우주론 지식은 복희의 先天方圓圖에 바탕한 선천역의 틀 속에서 해석하려 했다.¹⁵⁾

이러한 인식의 논리는 洪良浩(1724~1802), 黃胤錫(1729~1791), 洪大容(1731~1783)으로 이어지는 영정조대 서양과학에 높은 관심을 가졌던 일련의 조선 학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홍양호는 서양인들의 추보법이 정밀하여 청조에서 흠찬감에 배치하여 쓰고 있지만 “그 周天의 도는 복희와 화중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추보의 법은 전적으로 黃帝의 句股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 儒家의 후예”라고 주장했다.¹⁶⁾ 황윤석은 서양 역산학의 정밀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역상의 범위가 또한 주비를 넘어서지 않은 즉, 그 설이 비록 신기한 것 같지만, 그 이치는 이미 중국의 옛 사람들이 이야기 한 바 있다”¹⁷⁾라고 지적했으며, 홍대용 역시 “요순시대에는 선기옥형과 구고의 법에 의지해 천문지식이 떨쳤는데 그 후에 쇠퇴했던 것이 서양의 법이 나온 이래 機器와 술법의 오묘함이 요순이 남긴 비결을 깊이 얻었다”¹⁸⁾고 하여 기본적으로 서학중원설의 주장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대 서양과학에 대해 조선에서는 일급 수준이었던 李家煥(1742~

15) 박권수, 「서명응의 역학적 천문관」, 『한국과학사학회지』 20, 1998, pp.74-89. ; 구만옥, 『영조대 과학의 발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p.7.; 김영식, 『중국과 조선 그리고 중화』, 아카넷, 2018, pp.389-393. 참조.

16) 洪良浩, 『耳溪集』 卷15, 「與紀尙書書·別幅」, “泰西之人, 萬曆末始通中國, 步天之法, 最爲精密. 故置諸欽天監, 至今用之. 然其周天之度, 不出羲和之範圍, 推步之術, 全用黃帝之句股, 乃是吾儒之緒餘也.”

17) 黃胤錫, 『頤齋亂藁』 戊子(1768) 9월 10일 기록. 황윤석은 특히 중국 고대에 기원한 서양 역산학이 명대에 중국에 들어와 완성되었다가 오랑캐인 청에 빼앗긴 것임을 강조했다. 같은 책, 8월 16일 기사. 이와 관련해서는 김영식(2018), p.394. 참조.

18) 洪大容, 『湛軒書』 外集 卷6, 「籬水閣儀器志·測管儀」, “天有七曜, 垂象至著, 惟離地絕遠, 人視有限, 所以唐虞之神明, 猶待於璣衡之器, 句股之術也. 惜其法象失傳, 測候無據, 代有制作, 談說紛如, 摠出臆想, 小合大差. 蓋自西法之出, 而機術之妙, 深得唐虞遺訣” 특히 같은 곳에서 “古云, 天子失官, 學在四夷, 豈不信歟”라고 하여 전통적인 禮失求野 적 시각을 견지했다.

1801)이나 徐有本(1762~1822)도 동의하는 인식이었으며, 다산의 경우는 서양의 淸蒙氣說을 주장한 이가환의 논리를 보충하면서 『한서』 「京房傳」에도 그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¹⁹⁾

이러한 주장은 19세기까지 면면히 이어졌다. 19세기의 저명한 고증적 박물학자 李圭景(1788~1856)은 지구설이나 12중천설 등은 『주비산경』이나 『楚辭』에 이미 그 내용이 모두 나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역법이 크게 발전한 것은 명대 서양인들의 공이지만 그 유래를 찾아보면 모두 중국의 땅에서 기원해서 흘러 전해진 것”²⁰⁾이라고 지적하며 매문정 이하의 주장을 반복했다. 개화기 가장 개명적인 학자로 평가되며 조선에서 실학과 개화사상을 이어주는 가교역을 수행한 학자로 널리 인정받는 朴珪壽(1807~1896) 역시 지구설은 중국 고대의 혼천 개천가들이 언급한 것으로 『주비산경』의 글이 가장 저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주비의 법이 갖추어지면 서양의 지구설은 버려도 된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서양인들이 중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曆象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²¹⁾

그러나 조선의 학자들이 서학중원설을 굳건하게 지지만 한 것은 아니다. 특히 서명응의 아들 서호수는 실험과 실측에 어긋나는 이전 지식은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고로 관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늘을 따르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다. 반드시 만들어진 법칙과 세밀한 관측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대략

-
- 19) 丁若鏞, 『與猶堂全書 茶山詩文集』卷18, 「答少陵」, “蒙氣之說 奚但東廣微而已。漢書京房傳, 房上封事曰辛酉以來, 蒙氣衰去。又曰辛巳蒙氣復乘卦, 丁亥蒙氣去, 戊子蒙氣復起, 何不據此耶?”
- 20)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卷42, 「西洋通中國辨證說」, “凡曆法, 大明西人之功, 而詢其所自, 皆本中土所流傳。徐玄扈光啓篤信不遺, 稱以小義, 和者, 非溢美也。中原諸家, 以爲三代盛時, 聲教四訖, 重譯來王, 其時書籍, 流傳海外。周末, 疇人子弟, 失職外散, 遞處四海, 海外支流, 反得其傳, 而四海中味谷, 獨通中夏, 故西學有本, 良有以也。”
- 21) 朴珪壽, 『蠟齋集』卷4, 「地勢儀銘」, “大地圓之體, 渾天蓋天家言之, 而莫詳密於周髀之說。先儒亦多以理推而得之, 乃西夷則紛紛, 然乘巨舟逸溟海一周而後知之, 不亦遲鈍乎哉。山海之經, 穆天子之傳, 秦漢緯書之文, 鄒衍曼倩之言, 恍惚譎詭, 洵不足取證。雖然其傳會誇張, 亦必有所倚傍, 迄于今地理河渠之家, 旁採其說, 往往吻合而不差。… 夫周髀之發明, 而西夷地球之說廢之可也。”

어긋나지 않아야만 正法이 되는 것이다. 진실로 그렇지 않다면 어찌 옛 것에 구애되어 하늘을 어길 수 있겠는가?²²⁾

이는 실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서학중원론의 이념을 구체적인 발견된 진실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고의 단초가 담겨진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사실에서부터 사고하려는 시각은 서학중원의 논리 자체를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러한 사고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낸 이는 남병철이다.

총명하고 학식있는 사인들이 서양의 방법을 헐뜯어 배척할 수 없음을 알고 교묘하게 빼앗는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地圓은 『대대례기』에서 징험하고, 里差는 『주비산경』에서 징험하였으며 … 구중천이 겹겹이 에워싸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초사』에서 징험하고 … 털끝만큼이라도 비슷하다고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斷章取義하고 부연하여 끌어다 합쳐 증거로 삼았다. … 그러므로 一事一物도 빼앗아 중국의 법으로 삼지 않은 것이 없고 또한 중국의 법의 증거로 이용하지 않은 것이 없다. 참으로 이상하다.²³⁾

남병철은 서양의 학설이 고대 중국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조상이 지은 훌륭한 저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망가뜨린 후손이 다른 이의 저택을 보고 건축법이 같다는 이유로 자기 것이라고 우겨 강탈하는 것과 같은 일²⁴⁾이라고 주장하였다. 천하에 이런 이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중국의 유자들이 서양의 학술에 대해 혹시 이러한 점이 없는가 지적하면서 이러한 尊華攘夷의 학문은 지식이 깊어

22) 『新法算書』卷36, 「五緯曆指」卷1 「周天各曜序次」

23) 南秉哲, 『圭齋遺藁』卷5, 「書推步續解後」 “有聰明學識之士, 知其法之不可譏斥, 乃有巧取豪奪之事, 於是乎地圓則徵之以大戴禮, 里差則徵之以周髀經. … 九天重包則徵之以楚辭. … 苟有一毫疑似勞靡者, 則斷章取義, 敷衍牽合, 援以爲徵. … 故一事一物, 莫不奪之爲中國之法, 而亦莫不有其爲中國法之援徵, 誠異哉.” 南秉哲은 淸대학자 江永의 견해를 따랐다. 남병철에 대해서는 문종양, 「19세기 사대부 과학자 남병철」, 『과학사상』 33, 2000, pp.99-117.; 임종태(2012), pp.192-193. 참조.

24) 南秉哲, 앞의 책, “譬若有人厥祖先有美第宅, 其子孫不能葺修而頽圯之, 有人依其制度而築焉, 其子孫者見之曰, 鋪之以砌, 是我家之法也, 又曰擊之以柱, 是我家之法也, 是亦我家也已, 遂奪以居之, 則天下無是理矣.”

지면 질수록 더욱 그 폐단이 나타난다고 탄식했다. 남병철은 曆法은 하늘을 관측하는 것을 가장 훌륭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²⁵⁾

Ⅲ. 조선 학인들의 서학중원론과 문명수용의 비판논리

남병철의 탄식에서도 그 논점의 명확한 의미를 지적할 수 있듯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이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테면 존화양이와 같은 이념형 학문으로 학문의 성격을 구축할 경우 그 폐단은 학문이 깊어질수록 더욱 깊게 드러난다는 일침은 간과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다.

그런데 이를 문명수용의 논리로 이해할 경우 우리는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 논점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즉 객관적 학문, 이를테면 인격 고양이나 심신수양과 같은 심성수양의 논점을 학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학문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

서학중원론의 경우, 그것이 논의하는 지평은 심성수양과 같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객관대상에 대한 관심이다. 아울러 그것은 학문의 목표나 방법상의 논리로 바라볼 수 있으며, 벽이단의 논점과 같은 문화정체성의 측면에서도 검토가 가능하다. 층차를 구분하여 그 논점의 이면을 살펴본다.

1. 학문대상에 대한 인식논리

주희는 송학을 집대성하여 주자학을 구축했는데 여말선초 조선에 전래된 이래 주자학은 조선 학자들의 학문적 경로이자 목표였다. 그러므로 주

25) 앞의 책, “中國之士, 其於西法, 無或近是歟. 且以是爲尊華攘夷之學問, 故每見知識愈勝則其弊愈甚, 蓋曆法者, 驗天爲長”

자의 학문인식은 조선의 학인들에게 매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는 학문이란 天地, 草木, 鬼神, 人事에 대해 “꼭 이와 같을 것은 아니지만 큰 요체는 사람 된 도리를 아는 것이다.”²⁶⁾라고 지적하여 인륜의 도덕실천을 가장 중요한 학문대상으로 상정했다.

주자를 학문적 목표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宋時烈(1607~1689)은 공자의 학문방법인 博文約禮에 대한 설명에서 “여러 경전에 모두 통달해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의리에 침잠하고 장구를 반복해서 두루 관통하는 것”²⁷⁾이라고 해석하여, 경학적 이치의 탐색을 학문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여 그 도덕수양만을 중점적인 학문 대상으로 삼으려는 태도, 경전의 의리, 특히 주자학적 학문관으로 경전의 의미를 깊이 체득하되 한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학습하며, 장구를 반복하여 암송함으로써 두루 관통해 아는 것이 학문이라는 자세는 성경을 향한 수도사의 경건함까지 들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학문대상의 범위를 도덕과 경전의 세계에 제한하여 학문대상을 협소하게 하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그 체득하는 학문의 결과 인격수양에만 집중하거나 그 ‘明知’를 강조하는 방법론으로 인해 지적인 문제에만 골몰케 하는 문제를 노출할 수 있다.

17세기 이래 임병양란의 참화 속에서, 또 명청 교체기의 동아시아적 전환 속에서 柳馨遠(1622~1673)은 학문으로서 추구해야 할 이치가 원론적인 관념이나 이상적인 지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삼라만상의 구체적인 사물에 이치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그 구체성의 세계에서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지의 이치는 萬物에 부착되어 있어 만물이 아니면 理는 부착할 곳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성인의 도는 萬事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만사가 아니면 道는 행할 바가 없다고도 지적했다.²⁸⁾ 여기에 이르

26) 『朱子語類』卷26 論語8 “日亦不必如此, 大要知得爲人底道理則可矣. 其多與少, 又在人學力也” 中華書局 1994 ; 구만옥, 『영조대 과학의 발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p.226. 참조

27) 宋時烈 『宋子大全』卷106 「答朴大叔」 “夫所謂博者, 盡通諸經, 不遺一字, 沈潛乎義理, 反復乎章句, 浹洽貫通者是博也.”

28) 柳馨遠 『礪溪遺錄』卷26 「書隨錄後」 “天地之理, 著於萬物, 非物, 理無所著. 聖人之道, 行於萬事, 非事, 道無所行.”

면 학문대상은 만물과 만사로 확장된다. 사물의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치, 그 자체에 있는가? 이치가 실현되는 삼라만상에 있는가? 보이지 않는 신은 어디에 있는가? 보이지 않지만 나의 곁에서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관념 속에 있는가? 아니면 바로 나의 눈 앞에 있는 상대에게 깃들어 있는가? 상대에게 깃들어 있는 것이라면 나는 신을 대하듯 상대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문대상을 구체적 상대, 실체적 사실로 상정할 경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실질적인 측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유형원은 후대로 올수록 학문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 대강 대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條目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갓 본받을 만하고 한갓 좋기만 해서는 그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을 간절하게 드러냈다.²⁹⁾ 그가 20여년을 우반동에 은거하면서 저술한 『礪溪隨錄』의 가장 특징적인 국면은 구체적인 節目的 제시였다.

이러한 구체적 현실의 발견과 추구는 성호 이익에 이르러 학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전환적인 사고의 각성을 불러왔다. 반계 유형원을 두고 실무를 아는 선배 학자로 지목한 성호는 “참된 학문을 하고자 한다면 事務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사무와 실질적인 쓰임에 능숙하지 못하면서 팔짱을 끼고 눈을 내리깔면서 ‘본질적인 근원’의 탐구에 힘을 쏟는다고 말하는 유학자들을 두고 啞羊僧이라고 비판했다.³⁰⁾ 아양승은 혀를 두고도 설법하지 못하는 승려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음을 비판할 때 쓰이는 말이다. 통렬한 비판인 셈이다.

사무에 힘을 써야 한다는 이익의 강조는 학문 대상을 律曆과 算數와 같은 천문, 역학도 학문의 대상으로 포착될 수 있는 인식의 계기가 마련된다. 홍대용의 학문에 대한 인식은 바로 그러한 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29) 앞의 책, “間有儒者, 識其大體, 謂可行之斯世, 而一欲有爲焉, 則尅昔之際, 事多艱嶮, 而終至不可行者, 以其徒恃大體, 而條緒節目, 失其所宜故也. … 究古意, 揆今事, 並與其節目而詳焉. 蓋將以推經傳之用, 明此道之必可行於世也. 嗚呼! 徒法, 不能以自行, 徒善, 不足以爲政, 苟有志者, 誠思以驗焉, 則亦必有以知此矣.”

30) 李翼 『星湖全書』 卷37 「答秉休甲戌」, “汝既實學, 須留心事務, 不爲鑿空之歸也. 子曰誦詩三百, 授之以政不達, 使於四方不能專對, 雖多亦奚以爲, 如近世叉手低眉, 謂致力於本原者, 何異啞羊僧, 慎之.”

것이다. 홍대용은 구체적인 실용의 학문 역시 인간의 인격수양만큼이나 의미있는 학문이며, 인사 예절만큼이나 율력 산수 역시 구체적인 학문의 덕목이라고 여긴다.

정심과 성의가 진실로 배우고 실천하는 본체라면 開物成務는 배우고 실천하는 쓸모가 아니겠는가? 예의를 갖추고 사양하며 오르내리는 예절이 진정 개물성무의 급무라면 율력, 산수, 錢穀, 甲兵은 어찌 개물성무의 대단이 아니겠는가?³¹⁾

그러나 이렇게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는 홍대용의 인식은 당대로서는 매우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주장이었음을 서명응의 천문학을 평한 영조실록의 사관의 인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60년 영조는 경희궁 경현당에서 문신 학자들과 학문을 강론했다. 서명응은 부제학의 신분으로 입시하여 지역에 따라 밤낮의 길이가 다르고 절기의 시각이 차이가 나는 원리와 명대 曆法의 변천과정을 설명했다. 중국에서 13성에 따라 주야의 장단과 절기에 따른 일출 시각이 나누어지듯 우리도 팔도에 따라 주야의 장단과 절기에 따른 일출의 시각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²⁾ 이에 대해 사신은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제기한다.

사신을 말한다. 서명응은 당시에 이른 바 문학의 선비인데, 경연의 앞자리에 서 강론하고 토론한 것이 하나는 동북해에 조수가 없다는 말이고, 하나는 역법의 그릇됨을 논한 것이니, 이것이 과연 국가의 계획에 긴요한 임무와 聖學의 중요한 방도에 도움이 있겠는가? 한갓 章句의 학문으로 스스로 박식한 변론을 자랑하였으니 그가 본래 實得의 공부가 없음을 볼 수 있는데 또한 족히 유용한 재목이 되겠는가?³³⁾

-
- 31) 洪大容, 『湛軒書』 內集 3卷 「與人書」, “正心誠意, 固學與行之體也, 開物成務, 非學與行之用乎. 揖讓升降, 固開物成務之急務, 律曆算數, 錢穀甲兵, 豈非開物成務之大端乎?”
- 32) 『英祖實錄』 英祖 36年 12月 7日 “皇明不用(大統曆去)耶?” 命膺曰: “皇明本用(大統曆去), 而至崇禎年間, 內閣學士徐光啓, 修正新去, 將欲施行而未果矣.” 上曰: “中國曆書, 亦不必每州分其晝夜節氣, 則我國亦豈可測驗於每州乎?” 命膺曰: “中國以十三省, 分晝夜節氣, 我國亦當以八道分晝夜節氣矣.”
- 33) 『英祖實錄』 英祖 36年 12月 7日 “史臣曰: “徐命膺, 當世所謂文學之士, 而前席講討, 一則東北海無潮之說也, 一則曆法差謬之論也, 此果有補於國計之緊務, 聖學之要道者乎? 徒以章句之學, 自售博洽之辨, 可見其素無實得工夫, 而抑足爲有用之材乎?”

당시 사신의 눈에 역법을 논한 서명응의 학술은 聖學의 방도도 아니고 한갓 章句의 학문이었다. 결론적으로 實得의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학중원론에 동의하면서도 조선적인 개성을 지닌 천문 역법을 시행하자는 서명응의 구체적 실무에 대한 관심이 정당한 학문의 대상으로 이해되는데 18세기의 조선이라는 시공간은 아직 이른 시기였던 것이다. 당대 주류적 학문담론을 돌파하여 존재하는 세계, 구체적인 자연계에 대한 학문적 추구는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조대 史臣曰에서 보듯 문화접변의 격랑기에도 학문의 대상에 대한 기본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2. 학문적 목표 또는 방법의 문제

서명응은 영정조대에 탕평책에 협조하여 정치적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 간 문신 학자인데 그는 동궁시절 정조의 스승이기도 했다. 그를 시작으로 서호수, 서형수 형제와 서유구로 이어지는 가학적 전통은 조선학계에서도 독특한 지위를 가진다. 정조에 의해 국가적 지원을 받아 발간된 그의 『保晩齋叢書』는 象數學, 經學, 農學, 천문학, 수학 음악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대개 중국에서 유입된 학문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였다. 여전히 당대 조선 학계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었던 심성론과 예학적 학문 경향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보만재총서』에서 서명응의 자연과학적 지식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저술은 『先天四演』, 『髀禮準』, 『先句齋』등이다. 『선천사연』은 言, 象, 數, 意 이 네 가지 도로 伏羲의 先天 4圖를 부연하는 방법을 밝히는 것이고, 『비례준』은 본래 표리와 경위의 관계인 天象과 天數를 복희의 선천역학을 기준으로 융회 관통시켜 구법을 회복하는 것이다. 『선구제』는 선천의 상으로 句股의 법을 가지런히 하고, 구고의 법으로 七政의 운행을 가지런히 하려는 것이다. 모두 선천역학에 기초하여 서양의 역법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³⁴⁾

한편 그의 아들 서호수의 경우, 관측을 통해 획득된 객관적인 사실에

34) 구만옥, 『영조대 과학의 발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사, 2015, p.169.

의거하여 과학적 법칙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학문 방법론상의 대원칙을 진작부터 수립하고 있었다.

무릇 道는 형체가 없어 현혹하기 쉽고, 藝는 형상이 있어 거짓으로 꾸미기 어렵다. 내가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는 도를 좋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부도하며, 아울러 이른 바 예라는 것에는 언음이 없는 것을 미워할 따름이다.³⁵⁾

서호수는 周髀幾何學에 정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상 율리의 문제까지 소급해 나갔는데 그러한 학문전개의 이면에는 이러한 학문방법론에서의 확고한 기준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명응 부자의 시도는 기본적으로 역학체계 속에 서양과학을 편입시키려는 방향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서양과학 수용론으로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서학중원설'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었지만 뒤집어 보면 서양의 학문을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이기도 했다.³⁶⁾

그런 반면 서양의 천문 역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보였던 황윤석의 경우, "律曆之學은 儒子の 몸과 마음을 닦는 긴요한 것이 아니지만 천지 사이의 大文字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분야"였다. 그러므로 그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律曆淵源』을 구입하고자 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비어있던 조선학예의 현실을 고려하여 조선의 史志를 보충하려는 의도로 이 책을 원했던 것이다. 황윤석에게 서학은 그런 점에서 전통적인 동양의 律曆算數之學의 범위 내에서 접수되었던 것이다.³⁷⁾ 그러므로 서학중원설은 그에게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접수될 수밖에 없었다.

35) 徐澂修『明皇全集』卷8, 「幾何室記」, "道者, 形而上者也, 藝者, 形而下者也. 君子語上而不語下, 公之所好, 無乃不擇於術乎? 公曰然. 吾國無不知也. 夫道無形而易眩, 藝有象而難假, 吾非不好道也, 所惡名好道而實不道, 并與所謂藝者而無得焉爾."

36) 구만옥(2015), 앞의 책, p.174.

37) 구만옥(2015), 앞의 책, p.189. 참조.

3. 유교문화 정체성의 대응

유교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대응은 주로 서양의 과학기술과 함께 유입된 서교에 대한 경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서학이 점차 조선의 유학자들과 성호학파의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순암이 속한 성호학파의 존망을 위협하는 정도의 위협으로 다가오자 순암 안정복의 서학비판은 더욱 강렬해졌다.³⁸⁾ 순암은 이러한 당시 상황을 매우 우려하여 학술적인 견지에서 서학의 문제점을 밝힐 필요를 느꼈다.

서양의 글이 선조 말년부터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名卿碩儒들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나, 諸子나 道家 또는 佛家の 글 정도로 여겨서 서실의 구색으로 갖추었으며, 거기서 취택하는 것은 단지 象緯와 句股의 기술에 관한 것뿐이었다. 연래에 어떤 사인이 사행을 따라 연경에 갔다가 그에 관한 책을 얻어 가지고 왔는데, 계묘년(1783)과 갑진년 여름에 재기있는 젊은이들이 天學에 관한 설을 제창하여 마치 상제가 친히 내려와서 일러주고 시키는 듯이 하였다. 아아, 평생을 두고 중국 성인의 글을 읽어놓고 하루아침에 무리를 지어 異敎로 떨어져 버리고 마니, 이것이 어찌 3년을 배우고 돌아와서 그 어머니 이름을 부른다.'는 말과 다르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전기를 취하여 『天學考』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학문이 중국에 이른 것이 이미 오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오래며 지금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바이다.³⁹⁾

38) 1763년 성호 타계이후 성호의 제자 가운데 일부가 급속하게 천주교 신앙으로 빠져들고, 정부의 탄압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순암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특히 1784년 권철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순암은 서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강세구, 「벽위론의 전개-서학인식과 천주교배척」, 『순암 안정복의 사상과 학문연구』, 해안, 1996, pp.214-229. 참고.

39) 安鼎福, 『順菴集』 卷17 「天學考」 “西洋書, 自宣廟末年, 已來于東, 名卿碩儒, 無人不見, 視之如諸子道佛之屬, 以備書室之玩, 而所取者, 只象緯句股之術而已. 年來有士人隨使行赴燕京, 得其書而來, 自癸卯甲辰年間, 少輩之有才氣者, 倡爲天學之說, 有若上帝親降而詔使者然. 噫! 一生讀中國聖人之書, 一朝相率而歸於異敎, 是何異於三年學而歸, 而名其母者乎? 誠可惜也. 今取傳記之所存, 爲『天學考』, 使知此學之至中國已久, 至東方亦久而非自今始也.” 『순암집』의 번역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번역한 것을 참고하였다.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역사적 견지에서 서학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과 서학의 교리를 구체적인 논점을 들어 비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는 『천학교』의 마지막에 성호의 「천주실의발문」을 부록하고 그 아래에 서교를 믿는 자들이 성호선생도 이것을 배웠다고 무함한다며 이에 조목별 문답을 실어 그들을 일깨우려 했다.⁴⁰⁾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홍양호처럼 “서양인의 재주는 취하고 천주교는 배척하여 세교에 해가 되지 않게 하면 될 것”⁴¹⁾이라고 하거나 “서양인의 열 가지 기예는 배우고 포교하는 한 가지만 금하면 된다”⁴²⁾는 박제가의 생각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서구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진취적인 학자들의 경우, 서학과 서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보다는 서학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서교의 오염을 염려하면서도 서학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서학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서교에 대한 신봉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등장했다. 영정조대의 실학자 鄭東愈(1744~1808)는 그러한 측면에 대한 관찰기록을 흥미롭게 제시했다.

근일 서양의 습속은 數를 가르침으로 삼는다. 그런 까닭에 日月, 星辰의 운행과 方圓, 平置, 輕重의 이치를 손바닥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흰히 아니 역시 그들의 습속이다. 그것으로 역법을 만들면 符節을 합한 것처럼 들어맞고, 그것으로 기구를 제조하면 모두 상정을 뛰어넘는다. 중국인들이 처음 이 수를 보고 어찌 놀라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혹이 이에 그치지 않으니 드디어 그 도를 믿게 되었다.⁴³⁾

40) 앞의 책, “今爲此學者問或曰, 先生亦嘗爲之, 欲伸己說, 因而爲重, 而不覺自歸於誣誣師之科, 豈不寒心哉? 其學術之差, 別具于問答.”

41) 洪良浩, 『耳溪集』卷16, 「與紀尙書書 - 別幅」 “往見天主堂, 則繪像崇虔, 一如梵宇, 荒謔奇衰, 無足觀者, 而惟其測象儀器, 極精且巧, 殆非人工所及, 可謂技藝之幾於神者也, … 爲吾儒者, 惟當取其才而斥其學, 毋或貽害於世教可也.”

42) 朴齊家, 『北學議』, 「尊周論」

43) 鄭東愈, 『晝永編』 “近日 西洋之俗, 以數爲教, 故日月星辰之行, 方圓平置輕重之理, 瞭如指掌, 亦其俗也. 以之造曆而如合符節, 以之製器而俱出常情之外. 中國人始見此數, 亦安得不動魄驚奇而惑之也? 惑此不已, 遂信其道.”

그러나 좀 더 본격적으로 서학에 대해 벽이단적 시각을 견지했던 李獻慶(1719-1791)은 서양의 推步之法은 요순의 옛 법을 부연하여 설명한 것이므로 배척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면서도 서양의 천문 역학의 수준 자체를 낮게 평가하여 서양의 천문학 수준 자체를 평가절하했다.⁴⁴⁾ 중국의 성현들이 밝혀 놓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전혀 귀하게 여길 것이 못된다는 주장이나 서양의 천문역법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천문역법을 운용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일식이나 월식은 정치 득실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서양의 천문 역학은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기계적으로만 예측하려 한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⁴⁵⁾ 과학사의 과학기술발전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와 같은 이현경 류의 주장의 근간에는 스스로가 가진 문화 정체성을 놓을 수 없고 오히려 고집스레 지키고자 하는 의식의 강박이 구체적인 과학사실 접수하고 있는 국면에서도 갈등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북학을 배워야 한다. 북학에 전래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구문물의 도입논리로 원용되었던 서학중원설이 이 문화 정체성의 논점에서는 유교문화를 고수하는 입장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西器를 폄하하는 논리로 전환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⁴⁶⁾

IV. 남는 문제

검토한 바와 같이 서학중원론은 명청교체기의 학자들이 주장한 것으로 천문 역법분야에서 발전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려는 문명 대응

44) 李獻慶, 『艮翁集』 卷21, 「天學問答」 “西洋人雖善推步, 不過因伏羲黃堯舜之舊法, 敷衍爲說雜之以誕妄妖幻之辯而已.”

45) 李獻慶, 『艮翁集』 卷21, 「日食辨」 “其曰有常度則一也, 其說猶爲未備. 其曰當食不食者, 人勝天地其曰當食必食者, 天之常也. 又豈無不當食而食, 無責于天而專責於人者哉. 當食而或食或不食者, 如一歲兩交當兩食之類, 是固常度也. 其責不專乎人. 不當食而食者, 如漢高帝三年文帝三年, 逐月有之之類, 是又常度之外也. 其責專乎人. 天或常或不常, 人或專或不專, 而日食之說備矣.”

46) 이와 관련해서는 노대환, 앞의 책, pp.79-83. 참조.

내지 수용의 전략적 인식이었다. 명청을 통해 서양의 문물을 수용했던 조선의 학자들은 매문정으로부터 확립되는 서학중원론의 논리를 계승 또는 변용하면서 대체로 발전된 서양의 기술, 곧 서학은 수용하되 그들의 도, 곧 서교는 수용할 수 없다는 道器 분리 수용의 사고를 대체로 견지했다. 명확하게 발전된 서양 기술마저도 서학중원론이라는 완충적 인식논리를 거친 뒤에야 접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서양 기술의 원류는 원래 중원에 있던 것이었으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논리였던 셈이다.

물론 과학기술사의 발전과 전파 및 수용의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서학중원론의 역사적 진실성은 매우 희박할 뿐 아니라 그 논리적 허술함은 남병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론적 유사성으로 실제적 전개를 부정하는 간과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접변의 과정에서 거의 150년 이상 서학중원의 논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지식과 인식의 완고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과학과 문명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도기의 분리 수용에 대한 인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지금의 시점에서 의미있는 것은 그러한 수용의 논리를 접수하고 또는 저마다 조금씩 새롭게 창신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학자들의 대응자세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바로 이 점에 착목하여 학문대상으로서의 인식논리, 학문의 목표와 방법론의 문제, 문화정체성의 문제를 살펴본 것이다.

무엇을 학문대상으로 상정해야 할 것인가? 삼라만상이 학문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 더욱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역사적 인간, 그 자체의 자아 확립이 중시되던 시기에는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과 도덕수양이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으며 그 전거가 되는 유교경전에 대한 침잠 역시 중요한 방법론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목도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실사에서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당장의 실천조목이 필요할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 현실에 나아가 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희에서 송시열로 진행되던 조선의 학문이 유

형원과 이익에 이르러 크게 전환된 것은 바로 그러한 각성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현실에 대한 편견없는 관심이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정당한 관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서학에 대한 관심과 정당한 관찰에서 이익의 성취는 그런 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설사 새로운 이문명을 수용하고자 할 때에도 합당한 인식논리가 요청된다. 철저한 서학중원론의 계승자였던 서명응과 서학중원론의 논리를 수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측을 더욱 강조했다던 그의 아들 서호수의 대응자세는 비슷하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진전을 통해 구체적 사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서부터 모호한 기존의 논리를 타파할 수 있었던 남병철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도기의 분리적 수용이 가능하다는 관대한 기술 수용논자들의 인식을 우호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그 문화적인 요소의 移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정동유의 관찰은 간과할 수 없는 날카로움이 있다. 그런 점에서 안정복과 이헌경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다소 격렬한 토론과 완강한 저항은 그 사실관계에서의 오류와 논리적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일견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문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 변화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자세의 근거에는 새로운 문명과 상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당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이 물론이다. 주체의 확립은 항상 요청되는 것이지만 그 주체는 고립된 주체가 아니라 변화상을 온전히 접수해낼 수 있는 그런 주체에게서 더욱 성숙되기 때문이다.

〈參考 文獻〉

- 南秉哲, 『圭齋遺藁』, 韓國文集叢刊本 316, 民族文化推進會, 2003.
- 朴珪壽, 『瓏齋集』, 韓國文集叢刊本 312, 民族文化推進會, 2003.
- 徐命膺, 『保晚齋叢書』, 서울대학교고궁장각학국학연구원, 2007.
- 徐滢修, 『明阜全集』, 韓國文集叢刊本 261, 民族文化推進會, 2001.
- 宋時烈,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本 108-116, 民族文化推進會, 1993.
- 安鼎福, 『順菴集』, 韓國文集叢刊本 242, 民族文化推進會, 2000.
- 柳馨遠, 『磻溪遊錄』, 東國文化社, 1958.
- 李 瀾, 『星湖全集』, 韓國文集叢刊本 200, 民族文化推進會, 1997.
- 李獻慶, 『良翁集』, 韓國文集叢刊本 234, 民族文化推進會, 1999.
- 黃胤錫, 『頤齋亂藁』,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 洪大容, 『湛軒書』, 韓國文集叢刊本 248, 民族文化推進會, 2000.
- 洪良浩, 『耳溪集』, 韓國文集叢刊本 241, 民族文化推進會, 2000.
- 梅文鼎, 『歷學疑問補』, 中華書局, 1985.
- 阮 元, 『疇人傳』, 中華書局, 1985.
- 全祖望, 『結埼亭集』, 臺灣商務印書館, 1968.
- 朱 熹, 『朱子語類』, 中華書局, 1994.
- 李圭景, 국역분류 『五洲衍文長箋散稿』, 민족문화추진회, 1986.
- 朴齊家, 안대회역, 원역정본 『北學議』, 돌베개, 2013.
- 鄭東愈, 안대회외역, 『晝永編』, 휴머니스트, 2016.
- 『朝鮮王朝實錄』.
- 강세구, 「벽위론의 전개-서학인식과 천주교배척」, 『순암 안정복의 사상과 학문연구』, 혜안, 1996.
- 김영식, 『동양과 과학의 차-서양과학, 동양과학, 그리고 한국과학』, 사이언스북스, 2013.
- 김영식, 『중국과 조선, 그리고 중화-조선후기 중국인식의 전개와 중화사상의 굴절』, 아카넷, 2018.
- 구만옥, 『조선후기 과학사상사연구 I』, 혜안, 2004.

- 구만옥, 『영조대 과학의 발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사, 2015.
- 노대환, 『동도서기론 형성과정 연구』, 일지사, 2005.
- 문중양, 「19세기 사대부 과학자 남병철」, 『과학사상』 33, 2000.
- 박권수, 「서명응의 역학적 천문관」, 『한국과학사학회지』 20, 1998.
- 임종태, 『17, 18세기 중국과 조선의 서구 지리학 이해』, 창비, 2012.
- 함영대, 「『반계수록』의 전승과 『잡동산이』」,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2018.

Abstract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Seohakjungwonron (西學中源論) and Its Implications

Ham, Young-dae*

Seohak is the West's sciences handed down by Chosun envoys that came and went between Chosun and China after the 17th century, late Ming the early Qing. In fact, Chosun scholars' logic to cope with Seohak is still equipped with present meaning because it is intellects' logic to recognize new civilization.

In the academic circles of Chosun at that time, there was Dogi(道器) Divided Acceptance Theory intensely supported. It means that they had to follow the logic of acquiring superior scientific technology even if it was from Western civilization but would never accept heretical ideas associated with social order or moral practice unlike advanced technology. The layers of coping with Western civilization were, in fact, very diverse then. One of the interesting points about the coping logic is Seohakjungwonron(西學中源論).

Seohakjungwonron was insisted by Chinese scholars during late Ming and early Qing, and it means that the advanced West's science originated from China's ancient civilization. It was not just about ethnocentrism but what was developed into logic to accept new civilization.

Of course, consider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transmission, and acceptance of scientific technology in the holistic viewpoint, we can find Seohakjungwonron is hardly equipped with historical authenticity and can never disregard its logical absurdity.

Despite that, in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the logic of Seohakjungwon was maintained for more than about 150 years. This is not simply because of their stubbornness about knowledge and recognition but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viewpoints over science and civilization which headed for different directions. Through that, we can examine recognition logic as an object of sciences, problems in the goals

* Research Prof.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 alongdiri@hanmail.net

and methodology of sciences, and the matter of cultural identity.

Yet, what is obvious is that exact recognition on heterogeneous civilization and desirable attitudes to cope with changes should be grounded on righteous understanding as well as thorough analysis on new civilization and the counterpart preferentially. Although establishment of the subject is what is demanded all the time, that subject becomes mature not from an isolated subject but from that being able to receive the aspects of change in its entirety.

【Key words】 The 18th and 19th century, Seohakjungwonron(西學中源論), The Ming-Qing transition period, Chosun scholars, Dogi(道器) Divided Acceptance Theory

투고일 : 5월 25일, 심사완료일 : 6월 13일, 게재확정일 : 6월 16일

